



#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계통현안 해결 나선다

-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 본격 가동

- 신규 전력망 적기 구축, 전력망 알박기 관리 강화 등 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8일 이옥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 이슈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호남지역은 전력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인해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잉여전력이 발전되고 있어, 전력당국은 호남지역의 넘치는 발전력을 첨단산업,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건설·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 '23.4월, 10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345kV 송전선로 5개 및 서해안 해저HVDC 2개 루트 등

다만, 최근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크게 악화되어 건설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인허가 적기 시행, ▲광역지자체 내 전력망 건설 담당자 지정, ▲전력망 건설 애로 상시 소통창구 개설 등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정부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전력망만 선점하고 있는 ‘전력망 알박기 현상’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방향 안내와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한 지자체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옥현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이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기건설 속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계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전남·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계통 이슈가 발생하는 제주, 강원지역에 대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전력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정승혜 (044-203-3930) |
|       | 전력계통혁신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열 (044-203-3936) |

**1. 개 요**

□ (일시) 3.18(월) 15:10~16:30

□ (장소)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 (참석)

- (산 업 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장
-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해상풍력산업과장, 미래에너지산업과장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
-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 (주요내용) 전력망 적기건설, 알박기 관리 등 전남·광주 맞춤형 대책 논의

**2. 세부 일정**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15:10~15:15 (05') | · 인사말   | 산업부/전라남도   |
| 15:15~15:40 (25') | · 주요 안건 발표<br>- 전남·광주지역 계통현황<br>- 계통 안정화 과제 등 | 산업부/거래소/한전 |
| 15:40~16:30 (50') | · 자유토론<br>* 지자체 건의사항 포함                       | 참석자        |